

경제 및 고용 동향

◆ 2009년 6월 생산·소비 증가, 투자 감소

○ 2009년 7월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 1차 금속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를 보임으로써 9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함.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17.1%), 자동차(17.0%), 기타 운송장비(15.8%)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17.7%), 1차 금속(-10.7%), 영상음향통신(-10.5%) 등의 업종에서는 생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5%), 부동산업 및 임대업(7.7%), 금융 및 보험업(6.4%)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운수업(-7.7%), 협회·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3.5%), 교육서비스업(-2.4%)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7월 소비는 1.9% 증가, 설비투자는 18.2%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는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건설기성(경상)은 공공부문의 토목공사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경기사정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9%p 상승하여 2008년 12월부터 1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2009년 3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2.1%p 상승하여 2009년 1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2% 상승(생활물가지수 1.3% 상승)

○ 2009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함으로써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 전월대비 교통(1.2%), 식료품·비주류음료(0.8%), 주거 및 수도·광열(0.3%) 등을 중심으로 상승한 반면, 의복·신발부문(-0.3%), 기타 잡비(-0.2%), 가구집기·가사용품부문(-0.1%)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7월	4/4p	연간p	1/4	2/4	7월
생산	광공업 생산	4.0	7.0	5.9	11.0	6.8	10.6	8.9	5.6	8.6	11.3	3.0	-15.5	-6.2	-0.7 (2.0)
	제조업 생산	4.1	7.1	6.2	11.2	7.0	10.7	9.3	5.5	8.6	-12.1	3.0	-16.4	-6.7	0.8 (2.2)
	출 하	5.1	7.2	5.4	10.6	7.1	8.9	6.6	5.3	7.9	-10.1	2.4	-14.7	-5.9	-1.4 (0.9)
	수 출	6.7	9.9	9.1	16.2	10.2	14.3	14.3	10.3	12.3	-8.8	7.1	-12.4	-4.7	-0.7 (1.7)
	내 수	4.1	4.9	3.0	6.8	4.9	5.3	1.7	1.7	5.0	-11.0	-0.7	-16.3	-6.6	-1.9 (-1.0)
	서비스업 생산	5.4	6.4	7.2	6.8	6.4	6.4	4.8	3.2	4.2	-0.3	3.4	-0.4	1.6	0.8 (-0.8)
소비	소비재 판매	5.7	5.2	7.1	4.5	5.3	3.9	2.9	1.4	4.1	-4.6	1.0	-4.9	1.6	1.9 (-1.6)
투자	설비투자	12.8	12.1	0.7	9.2	8.6	-0.9	-2.7	5.3	7.0	-16.2	-4.3	-17.7	-13.4	-18.2 (-11.6)
물가		2.1	2.4	2.3	3.3	2.5	3.8	4.8	5.5	5.6	4.5	4.7	3.9	2.8	2.2 (0.4)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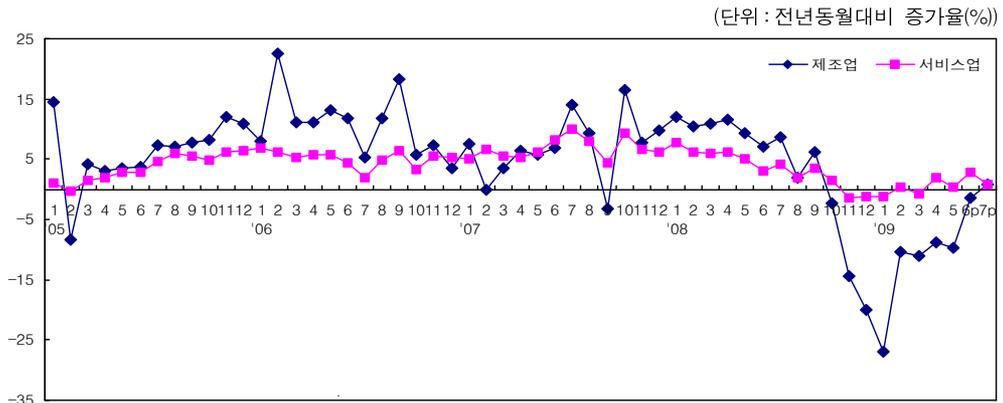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는 8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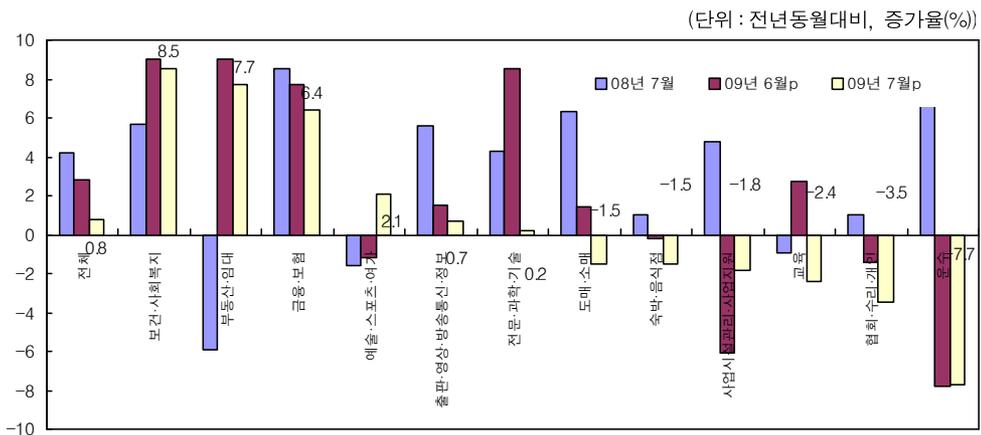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9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09. 8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감소 지속

- 2009년 7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75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천 명(0.3%)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494천 명으로 112천 명(0.8%) 증가한 반면, 여성은 10,261

천 명으로 29천 명(-0.3%) 감소함.

- 2009년 7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3.9%)이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고, 여성(50.0%)이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여성 참가율의 하락세가 지속(그림 3 참조).
- 2009년 7월 중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70.7%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5%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하였음.
- 2009년 7월 중 취업자는 23,82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천 명(-0.3%)이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87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0.0%), 여성 취업자는 9,95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 명(-0.7%)이 감소함(그림 4 참조).
- 2009년 7월 중 실업자는 92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9천 명(20.6%)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61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5천 명(22.8%)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 명(16.4%)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3%로 전년동월대비 0.8%p, 여성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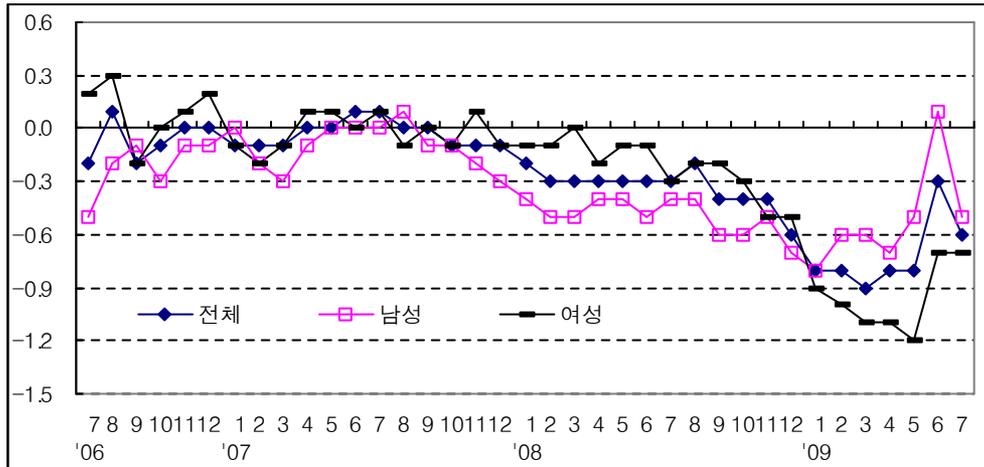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8					2009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7월
경제 활동 인구	23,852 (0.7)	24,638 (0.6)	24,503 (0.6)	24,673 (0.5)	24,394 (0.3)	23,812 (-0.2)	24,680 (0.2)	24,927 (0.8)	24,756 (0.3)
참 가 율	60.5	62.3	61.8	62.3	61.3	59.7	61.7	62.2	61.7
취 업 자	23,051 (0.9)	23,871 (0.7)	23,752 (0.6)	23,903 (0.6)	23,636 (0.3)	22,904 (-0.6)	23,737 (-0.6)	23,967 (0.0)	23,828 (-0.3)
고 용 률	58.5	60.4	59.9	60.3	59.4	57.4	59.3	59.8	59.4
실 업 자	801	767	752	769	757	908	943	960	928
실 업 률	3.4	3.1	3.1	3.1	3.1	3.8	3.8	3.9	3.7
비경제활동인구	15,575 (1.8)	14,903 (1.7)	15,154 (1.9)	14,949 (2.0)	15,373 (2.5)	16,088 (3.3)	15,347 (3.0)	1,5151 (2.0)	15,369 (2.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 『2009년 7월 고용동향』, 2009. 8.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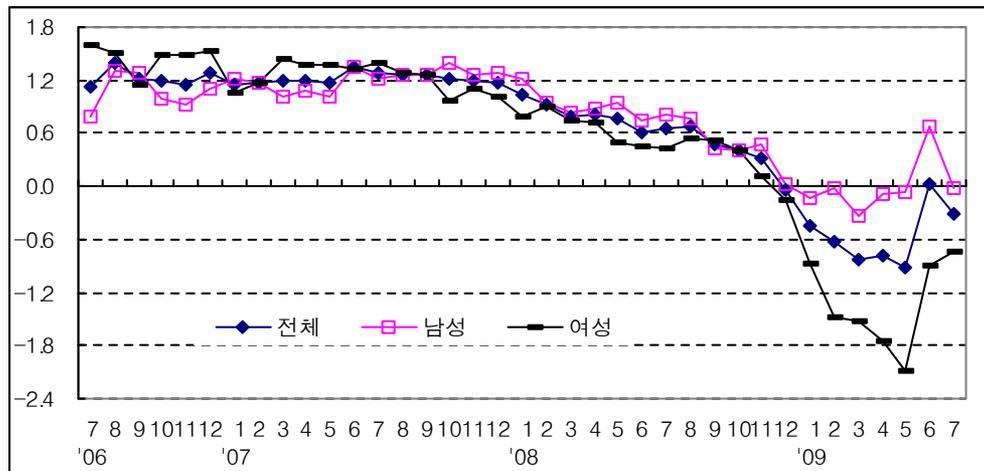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09년 7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3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0천 명(2.8%)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12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6천 명(3.3%)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24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5천 명(2.5%)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8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2천 명(9.6%), 구직단념자는 17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

천 명(42.8%),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통학’은 4,165천 명으로 33천 명(0.8%) 증가함.

◆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세 가속화

○ 2009년 7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69천 명, 6.1%)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173천 명, -4.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65천 명, -2.9%), 건설업(-127천 명, -7.0%), 전기·운수·통신·금융업(-55천 명, -2.0%), 농림어업(-22천 명, -1.2%)에서는 감소함.

－ 제조업,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세가 2008년 이후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됨(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08					2009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7월
전 산 업	23,051 (0.9)	23,871 (0.7)	23,752 (0.6)	23,903 (0.6)	23,636 (0.3)	22,904 (-0.6)	23,737 (-0.6)	23,967 (0.0)	23,828 (-0.3)
농림어업	1,384 (-4.4)	1,842 (-2.8)	1,824 (-2.0)	1,824 (-2.3)	1,695 (0.5)	1,398 (1.0)	1,817 (-1.3)	1,858 (-0.3)	1,794 (-1.2)
제조업	4,013 (-0.4)	3,993 (-0.8)	3,934 (-1.3)	4,097 (-0.7)	3,910 (-2.6)	3,850 (-4.1)	3,843 (-3.8)	3,836 (-3.9)	3,802 (-4.3)
건설업	1,748 (-1.2)	1,886 (-2.4)	1,801 (-2.2)	1,829 (-1.4)	1,811 (-2.2)	1,705 (-2.5)	1,772 (-6.0)	1,776 (-4.7)	1,692 (-7.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04 (-0.6)	5,670 (-0.7)	5,670 (-0.9)	5,737 (-0.8)	5,657 (-1.1)	5,589 (-2.0)	5,534 (-2.4)	5,551 (-2.2)	5,572 (-2.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382 (3.8)	7,643 (4.0)	7,721 (4.5)	8,000 (3.9)	7,787 (4.0)	7,618 (3.2)	7,984 (4.5)	8,145 (5.4)	8,198 (6.1)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796 (2.7)	2,816 (1.8)	2,778 (-0.7)	2,392 (-0.4)	2,754 (-1.9)	2,722 (-2.6)	2,765 (-1.8)	2,779 (-0.9)	2,747 (-2.0)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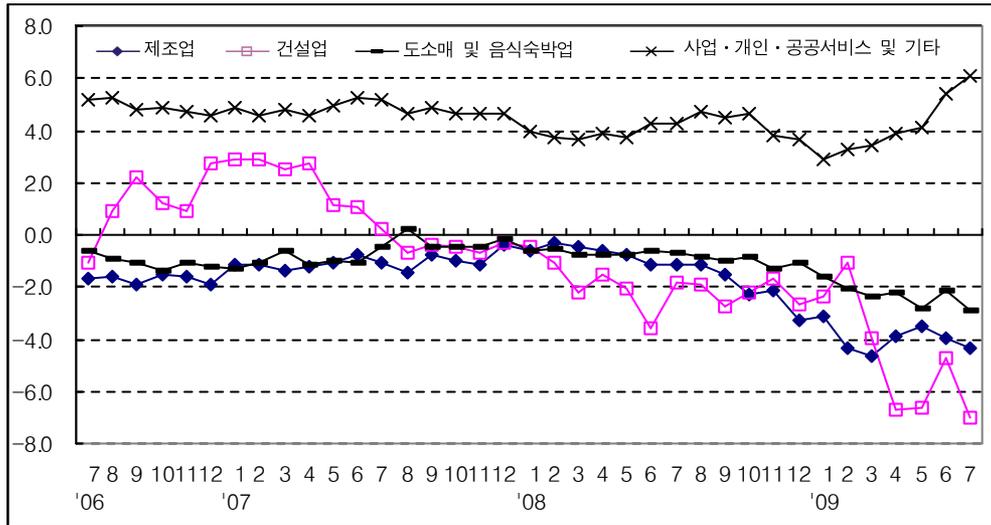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2009년 7월 고용동향』, 2009. 8.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 임시·일용근로자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9년 7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2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2천 명(4.0%)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58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6천 명(1.4%)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383천 명으로 329천 명(3.6%), 임시근로자는 5,255천 명으로 92천 명(1.8%)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952천 명으로 195천 명(-9.1%) 감소함.
 - 2009년 6월 이후 임시근로자의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됨(그림 6 참조).
- 2009년 7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62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64천 명(31.3%)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852천 명으로 963천 명(-4.6%) 감소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1,057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5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 명(20.7%) 증가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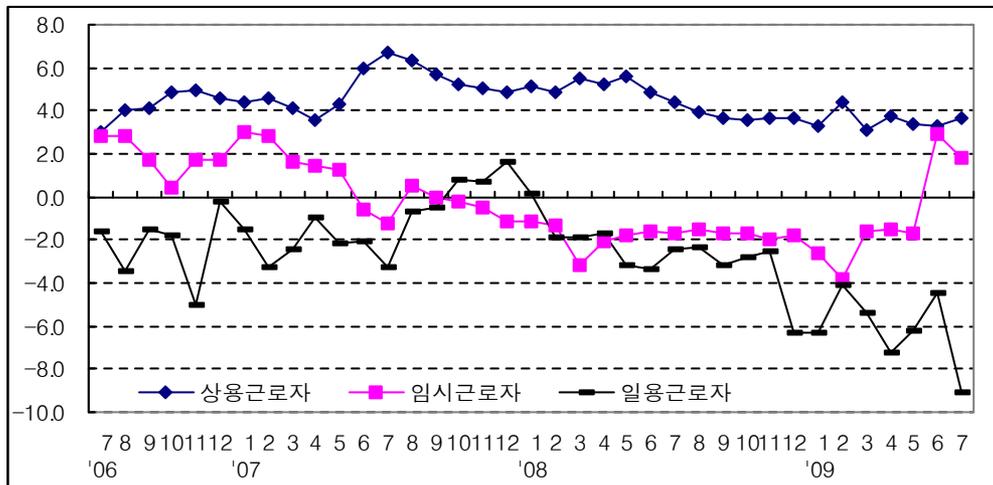
(단위:천 명, %)

	2008					2009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전 체	23,051 (0.9)	23,871 (0.7)	23,752 (0.6)	23,903 (0.6)	23,636 (0.3)	22,904 (-0.6)	23,737 (-0.6)	23,967 (0.0)	23,828 (-0.3)
비임금근로자	7,097 (-1.4)	7,521 (-1.5)	7,522 (-0.9)	7,540 (-1.1)	7,343 (-1.1)	6,877 (-3.1)	7,212 (-4.1)	7,231 (-4.6)	7,239 (-4.0)
자영업주	5,816 (-1.3)	6,073 (-1.1)	6,052 (-1.2)	6,062 (-1.3)	5,939 (-1.6)	5,620 (-3.4)	5,787 (-4.7)	5,806 (-4.7)	5,834 (-3.8)
무급가족종사자	1,281 (-1.8)	1,449 (-3.3)	1,470 (0.7)	1,478 (-0.1)	1,404 (0.9)	1,258 (-1.8)	1,425 (-1.6)	1,425 (-4.0)	1,405 (-4.9)
임금근로자	15,954 (2.0)	16,350 (1.8)	16,229 (1.3)	16,363 (1.5)	16,294 (0.9)	16,027 (0.5)	16,525 (1.1)	16,736 (2.1)	16,589 (1.4)
상용근로자	8,839 (5.2)	8,981 (5.2)	9,101 (4.0)	9,054 (4.4)	9,106 (3.6)	9,157 (3.6)	9,294 (3.5)	9,340 (3.3)	9,383 (3.6)
임시근로자	5,064 (-1.9)	5,141 (-1.8)	5,050 (-1.6)	5,163 (-1.7)	5,062 (-1.8)	4,928 (-2.7)	5,136 (-0.1)	5,281 (2.9)	5,255 (1.8)
일용근로자	2,051 (-1.2)	2,227 (-2.8)	2,079 (-2.6)	2,146 (-2.4)	2,126 (-3.8)	1,942 (-5.3)	2,094 (-6.0)	2,115 (-4.5)	1,952 (-9.1)
36시간 미만	2,770 (-8.1)	3,055 (19.1)	5,132 (29.5)	2,760 (-36.0)	2,833 (11.1)	3,092 (11.6)	2,997 (-1.9)	2,996 (11.9)	3,624 (313)
36시간 이상	19,888 (2.6)	20,546 (-1.7)	18,139 (-5.7)	20,815 (9.0)	20,552 (-1.2)	19,351 (-2.7)	20,480 (-3.0)	20,681 (-1.3)	19,852 (-4.6)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9년 7월 고용동향』, 2009. 8.

〔그림 6〕 임금근로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모든 연령대, 모든 교육정도별 실업자 증가

- 2009년 7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전 연령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30대와 50대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09년 7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20대(8.0%, 1.0%p), 30대(3.6%, 0.7%p), 40대(2.3%, 0.3%p), 50대(2.7%, 0.7%p), 60대 이상(1.6%, 0.6%p)에서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3%, 0.1%p), 고졸(5.0%, 1.0%), 대졸 이상(3.2%, 0.5%p) 모두 상승하였음.
- 2009년 7월 중 전체 실업자 928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5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 명 감소한 반면,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78천 명으로 160천 명 증가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8					200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7월			6월	7월
전 체	801(3.4)	767(3.1)	752(3.1)	769(3.1)	757(3.1)	908(3.8)	943(3.8)	960(3.9)	928(3.7)
15~29세	328(7.3)	327(7.4)	303(6.9)	334(7.4)	300(7.0)	368(8.6)	351(8.0)	372(8.4)	379(8.5)
30~39세	193(3.1)	187(3.0)	193(3.1)	183(2.9)	202(3.3)	227(3.7)	237(3.9)	233(3.8)	217(3.6)
40~49세	160(2.4)	138(2.1)	138(2.1)	135(3.0)	134(2.0)	166(2.5)	176(2.6)	166(2.5)	157(2.3)
50~59세	83(2.0)	82(1.8)	91(2.1)	90(2.0)	93(2.1)	108(2.4)	127(2.7)	132(2.8)	127(2.7)
60세 이상	38(1.6)	33(1.2)	27(1.0)	27(1.0)	29(1.1)	39(1.6)	53(1.9)	57(1.9)	47(1.6)
중졸 이하	128(2.5)	120(2.2)	113(2.1)	119(2.2)	111(2.1)	143(2.9)	141(2.6)	142(2.6)	120(2.3)
고 졸	402(4.0)	368(3.7)	381(3.8)	406(4.0)	383(3.8)	438(4.5)	459(4.6)	495(4.9)	507(5.0)
대졸 이상	271(3.1)	279(3.1)	258(2.9)	245(2.7)	263(2.9)	327(3.6)	343(3.7)	324(3.5)	301(3.2)
취업무경험 실업자	44	49	39	52	37	47	38	47	50
취업유경험 실업자	757	718	713	718	721	861	905	914	878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9년 7월 고용동향』, 2009. 8.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09년 2/4분기 임금상승률, 전년대비 1.6% 하락

○ 2009년 2/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524천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6% 하락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 증가율은 -0.7%인데 반하여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의 증가율이 각각 -10.9%, -5.0%를 기록하여 임금하락세를 주도
-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1.3% 하락한 806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
- 경기둔화로 인한 임금상승률 하락추세는 2008년 4/4분기 이후 지속됨.

○ 실질임금도 4.3% 하락

- 2009년 2/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명목임금총액은 1.6% 하락한데 비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이보다 높은 4.3%의 하락폭을 기록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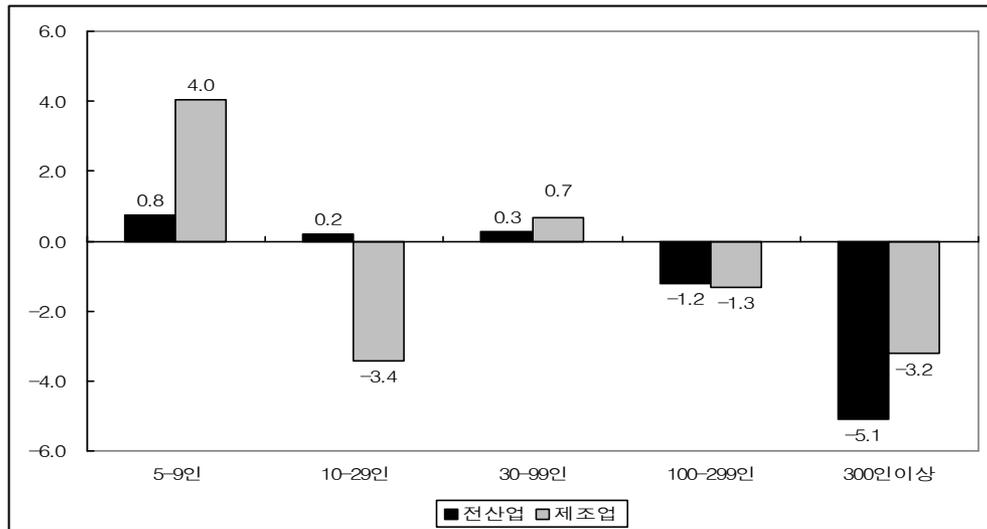
	2007				2008				200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510 (-)	2,410 (-)	2,604 (-)	2,719 (-)	2,662 (6.1)	2,563 (6.4)	2,672 (2.6)	2,661 (-2.1)	2,612 (-1.9)	2,524 (-1.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661 (-)	2,555 (-)	2,761 (-)	2,811 (5.7)	2,746 (7.5)	2,842 (3.0)	2,840 (-1.7)	2,753 (-2.1)	2,684 (-2.3)
	정액급여	1,995 (-)	1,995 (-)	2,028 (-)	2,103 (5.4)	2,171 (8.8)	2,148 (5.9)	2,194 (5.1)	2,142 (1.9)	2,156 (-0.7)
	초과급여	156 (-)	167 (-)	165 (-)	168 (8.2)	169 (1.7)	158 (-4.2)	156 (-9.4)	139 (-17.4)	151 (-10.9)
	특별급여	510 (-)	394 (-)	568 (-)	540 (5.8)	406 (3.1)	536 (-5.5)	490 (-22.2)	472 (-12.5)	386 (-5.0)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	870 (-)	911 (-)	918 (-)	918 (-)	887 (1.9)	816 (-10.4)	880 (-4.2)	836 (-9.0)	829 (-6.5)	806 (-1.3)
실질임금 (전체 근로자)	2,425 (-)	2,304 (-)	2,472 (-)	2,565 (-)	2,478 (2.2)	2,339 (1.5)	2,405 (-2.7)	2,402 (-6.4)	2,341 (-5.6)	2,239 (-4.3)
소비자물가지수	103.5 (2.1)	104.6 (2.4)	105.3 (2.3)	106.0 (3.3)	107.4 (3.8)	109.6 (4.8)	111.1 (5.5)	110.8 (4.5)	111.6 (3.9)	112.7 (2.8)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그림 7] 규모별 임금상승률(2009년 2/4분기)

(단위 : %)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대규모 사업체에서 큰 폭의 임금하락세 기록

- 2009년 2/4분기 전산업의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9인 0.8%, 10~29인 0.2%, 30~99인 0.3%, 100~299인 -1.2%, 300인 이상 -5.1%를 기록하여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하락세가 크게 나타남.
- 제조업에서는 5~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은 4.0%인데 반하여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3.2%로 나타나 규모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강승복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건수 전년과 차이 없음. 근로손실일수는 30.7% 감소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13일까지 누적집계된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88건으로 전년(89건)과 큰 차이 없음.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9일까지 누적집계된 근로손실일수는 473,608일로 전년동기대비 30.7% 감소

◆ 한국노총, 비정규직 해고자 구제 집단소송 추진

○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는 8월 25일 비정규직 해고자 구제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

－ 공공부문 해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해고자 및 금융기관 해고자 구제를 위한 해고무효확인소송 계획을 밝힘.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해고대란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나 법 시행 두 달이 지난 현재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음.

－ 금년 7월 초부터 산하조직 3,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정부의 예상과 달리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2,540명이 전환되었고, 504명이 해고·계약 해지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업장의 상당수가 공공부문이며, 이는 100만 해고대란설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철회하고 즉각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

※ 집단소송 추진계획

· 8월 25일 공공부문 해고자(180여명)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 9월 초 금융기관 해고자(200여명) 해고무효소송 제기

〈표 7〉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09. 1. 1~2009. 9. 13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88	89	-1.1
종 결	75	76	-
진 행	13 (1)	13 (2)	()안은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473,608	683,063	-30.7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9월 9일 기준임.
자료: 노동부.

◆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

○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갈등구도를 이어오던 금호타이어 노사가 9월 5일 제24차 교섭에서 2009년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함.

-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 무노동 무임금 적용 ▲ 2009년 기본급 동결, 정기승호(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호봉을 올리는 것) 유지 ▲ 2008년 추가 성과급 미지급 ▲ 2009년 성과급은 2010년 1사분기에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등
- 전면배치와 정리해고 등 핵심쟁점을 담은 ‘국내공장 경쟁력 확보 및 고용안정을 위한 별도합의서’에는 ▲ 특근 형태로 진행중인 현장도우미 214명 가운데 19명만 정규인력으로 전환, 나머지는 폐지 ▲ 품질혁신운동 ▲ 여유인력 전환배치 ▲ 정리해고 철회 등이 포함됨.
- 노조는 9월 11~12일 200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결과 54.2% 찬성으로 합의를 통과시킴.
 ※ 재직조합원 3,855명 중 3,680명 투표, 찬성 1,995명

○ 노사협상이 타결되기까지 4개월간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호타이어 노사는 5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단체협상을 계속해 왔으나 6차(5월 11일~6월 4일)에 걸친 교섭에서 노사 상호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자, 노조는 6월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1.3% 찬성으로 가결 처리하고 7월 1일부터 정리해고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 및 태업 계속(7월 24~26일 전면파업, 8월 14~22일 4시간 부분파업, 8월 23~24일 전면파업, 9월 4일 전면파업). 노조는 ▲ 기본급 8만 7,709원 인상 ▲ 지난해 성과급 및 올해 성과급 협의 ▲ 설비투자 이행 ▲ 국내공장 경쟁력 확보 등을 요구함.
- 이에 대해 사측은 6월 4일 사측안 ▲ 임금동결 ▲ 지난해 추가 성과급 지급 불가 ▲ 복리후생 중단 등 6개항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생산규모 70% 수준으로 축소 및 잉여인력 706명 구조조정 계획을 밝힘. 노조의 파업에 대해 사측은 8월 25일, 9월 5일 두 차례 직장폐쇄로 대응함. 또한 사측은 8월 27일부터 2차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사측은 8월 10일부터 1차 명예퇴직 신청자를 접수하고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8월 29일에는 쟁의대책위원 21명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함.
- 사측의 정리해고 입장(9월 4일, 정리해고 대상자 690명에게 9월 17일자 해고 통보)과 노조의 전면파업 행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으나, 9월 5일 11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끝에 극적인 노사협상 타결이 이루어져 사측은 정리해고 입장을 철회

하고, 노조는 파업중단·업무에 정상복귀함.

◆ 부산·울산항 예인선노조 파업

○ 전국운수노조 항만예인선지부 부산·울산지회는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8월 7일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9월 9일 현재 34일째 파업 계속

－ 부산·울산지회는 2009년 6월 24일, 6월 27일 각 노조설립 후 7월 16일까지 5차례 교섭이 진전 없이 끝나자, 7월 1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부산지 노위는 8월 6일 부산·울산지회에 대한 조정회의를 개최,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 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각 조정중지 결정

※ 노사] 주요 쟁점: ▲ 전임자 1~2명 임금지급[수용불가] ▲ 노조사무실 제공[수용불가] ▲ 특별성과급(1인당 50만 원)[수용불가]

－ 8월 10일 울산지회 사측(3개사)은 파업참가 선박 26척에 대해 직장폐쇄, 부산지회 사측(3개사)도 8월 11~12일 파업참가 선박 11척에 대해 직장폐쇄(8월 14일, 1척 직장폐쇄 철회)

－ 울산지회 노사는 8월 28일 울산지청에서 교섭을 개최하였으나 선장의 조합원 자격유무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 없이 종료

※ 노동부는 8월 6일, ‘예인선 선장은 예선 선주로부터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등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음.

－ 울산지회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시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인 한편, 울산항 예인선사 3곳은 9월 8일 울산지회 소속 조합원인 선장 25명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것이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함.

－ 부산지회는 9월 7~8일 고려해운 등 3개사와 개별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교섭방식(노조는 공동교섭을, 사측은 개별교섭을 주장)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없이 종료

※ 부산지회 노사는 8월 27일 교섭방법(개별교섭)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노사 각 교섭위원 2명을 선임하여 개별교섭하는 데 합의(노조는 당초 집단교섭 요구) ▲ 노조는 선원에 대한 준거법 및 선장의 근로자성에 대한 사항은 법원 등의 판단에 따르고 기본협약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 ↔ 사측은 조건 없이 교섭하자는 입장 표명

◆ 쌍용차노조, 민주노총 탈퇴

- 쌍용차노조는 9월 8일 실시한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에서 73.1%의 찬성으로 탈퇴 안건을 가결함.
 - ※ 전체 조합원 3,508명 중 2,642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찬성 1,931명(73.1%), 반대 264명(10.0%), 기권 436명(16.5%), 무효 11명(0.4%)
 - 이에 쌍용차노조는 1995년 민주노총에 가입한지 14년만에 상급단체 없이 기업노조로 전환되며, 국내 완성차업체 중 처음으로 독립노조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 민주노총은 쌍용차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9월 8일 논평에서 “이번 투표가 내용적·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원인무효 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따라서 투표결과를 조합원의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총회결과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양노총,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관련 하반기 투쟁계획안 결정

- 1997년 이래 13년 동안 유예되어온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방안 법제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를 반대하는 하반기 투쟁계획안을 수립
 - 양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정하는 데 반대하며 전임자 임금지급도 노사 자율로 하자는 입장. 이에 따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을 둘러싼 노사정간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한국노총은 8월 21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하반기 투쟁계획을 결정. 8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계획안을 최종 확정함.
 - ※ 1단계(8~10월): 현장조직화 및 총력투쟁 결의
 - 8~9월: ▲ 노총 위원장 지역본부 현장순회(8월 19일~9월 28일) ▲ 중앙집행위원회(8월 27일) ▲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8~9월 말) ▲ 노사정위원회 교섭집중 등
 - 10월: ▲ 임시대의원대회(10월 중순) ▲ 전 조직 조합원 교육 ▲ 지방노동청 압박 투쟁(지역노사정협의회 및 노사민정 불참 등 협조관계 거부) 등
 - 2단계(11~12월): 전 조직 총력투쟁
 - 11월: ▲ 지역본부 및 지부별 지구당사 앞 집회 개최(지역구 국회의원 압박투쟁) ▲ 총파업 찬반투표 ▲ 전국노동자대회(11월 말) ▲ 노총 지도부 천막농성 돌입 등
 - 12월: ▲ 단위노조 대표자 및 전임자 상경투쟁(한나라당 압박투쟁) ▲ 정책연대 파기 및 총파업 선언 ▲ 대정부 전면투쟁 등

- 민주노총도 8월 20~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
- ※ 논의주제는 ▲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저지 ▲ 복수노조·전임자 등 노조법 개정 관련, 사회공공성 강화 등으로 장기간 토론
- 민주노총은 논의 결과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 10월까지 교육홍보에 주력, 이 후 노동부의 입법예고와 정기국회 기간 환경노동위원회 등 국회의원 면담과 대체입법안을 발의 ▲ 정권 불신임 투쟁 계획.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11월 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추진 **KLI**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